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미래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1월 8일(화) 총 5매		
담당 부서	시립박물관	담당자	•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☎440-6731 • 담당자 안성희 ☎440-673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플레인양상블과 함께하는
‘어제와 오늘을 잇는 박물관 음악회’
- 인천시, 11.13일(일) 시립박물관에서 고일 미공개 아카이브전
연계 로비 음악회 재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13일(일) 오후 4시부터 시립박물관 로비에서 2022년 시립박물관 갤러리전시 <매일매일 인천 기록 : 고일 미공개 아카이브>전과 연계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음악회는 10월 30일 예정됐던 공연을 국가 애도 기간 중 한 차례 연기했다가 재개하는 것이다.

이번 음악회는 『인천석금(仁川昔今)』의 저자로 잘 알려진 故 고일 선생의 손자 고춘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진 콘체르트아트하우스와 플레인양상블이 고춘 선생을 기억하며 마련한 자리이다.

공연은 인천의 역사·문화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개인의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일 선생과 그가 활약했던 과거의 인천, 그리고 오늘의 인천이 꿈처럼

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

이를 위해 바이올린 고수민, 비올라 고재민, 첼로 고희민, 피아노 이선화 등으로 구성된 플레인앙상블은 <아리랑 랩소디>, <바람이 불어오는 곳>, <아름다운 나라> 등 대중가요에서 가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.

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“사람과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일상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또 다른 역사를 만들자는 내용의 전시와 공연을 준비했다. 우리의 일상과 이웃에게 많은 아픔이 있는 이 시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위로와 애도를 나누고 우리 주변을 더욱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과정 없이 당일 입장하는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다.

[붙임 1] 포스터

[붙임 2] 공연 사진

[붙임 3] 프로그램 정보

<붙임 1> 포스터

갤러리전시 연계 로비 음악회

플레인양상블과 함께하는 '어제와 오늘을 잇는 박물관 음악회'

Incheon's daily recor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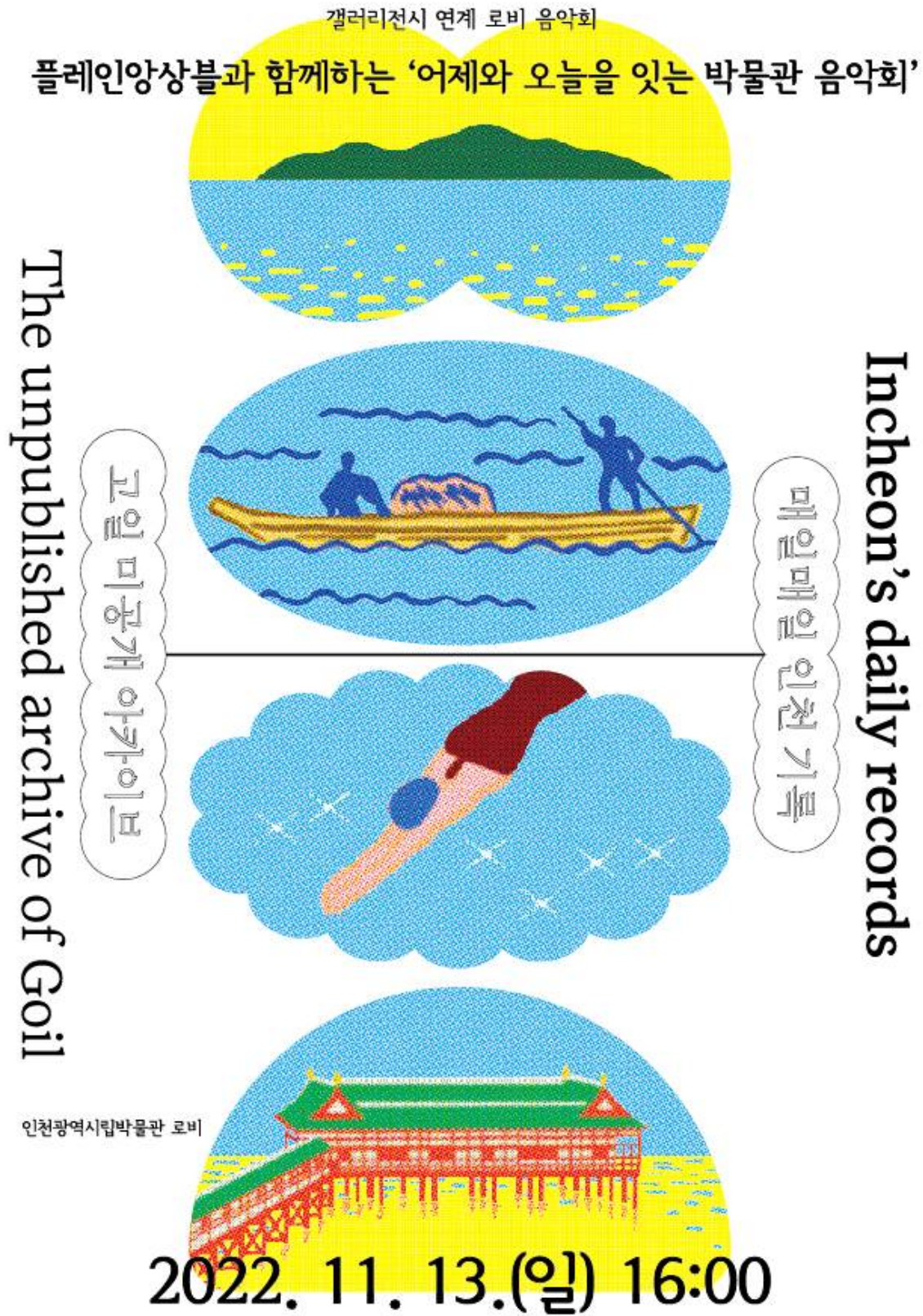
매일매일 인천 기록

고일 미공개 아카이브

The unpublished archive of Goil

인천광역시립박물관 로비

2022. 11. 13.(일) 16:00



<붙임 2> 공연 사진



<붙임 3> 프로그램 정보(참고자료)

프로그램

1. 아리랑 랩소디
2. 아침 이슬
3. 제주도 푸른 밤
4. 바람이 불어오는 곳
5. 걱정말아요 그대
6. Butter
7. 아름다운 나라

※ 연주 순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출연진

기획 : 구인숙 (콘체르트아트하우스 대표)

해설 및 진행 : 고춘 (콘체르트아트하우스 감독)

플레인앙상블

- 바이올린 고수민
- 비 올 라 고재민
- 첼 로 고희민
- 피 아 노 이선화